

광주·전남 소비 코로나 이전 회복

하반기 카드 사용액 5년내 최고 상생 지원금·방역 완화 등 영향 숙박·음식점 마이너스 '불균형' 지난달 3.5%... 물가 잡기 과제

올해 하반기 들어 광주·전남 개인 카드 사용액이 최근 5년 내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민간 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 우려변이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숙박·음식점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 소비가 균형 있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통계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4개월 동안(7~10월) 개인카드 총 사용액(신용+체크카드)은 15조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1조4000억원) 증가했다.

하반기 4개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광주·전남 개인카드 사용액은 올해 15조원을 넘기며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1조2000억원(광주 6조원·전남 5

조2000억원)에 이어 ▲2018년 12조5000억원(광주 6조6000억원·전남 5조9000억원) ▲2019년 13조4000억원(광주 7조1000억원·전남 6조3000억원) ▲2020년 13조7000억원(광주 7조1000억원·전남 6조6000억원) ▲올해 15조1000억원(광주 7조9000억원·전남 7조2000억원) 등으로 지역 카드 소비는 증가해왔다.

지난달 총 카드사용금액을 카드대상자 수로 나눈 '1인당 카드사용금액'은 광주 173만원·전남 14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9.5%(15만원), 7.6%(10만원) 늘었다.

특히 광주지역 1인당 카드 사용액은 통계를 낸 지난 2017년 1월(130만원) 이후 가장 많았다.

전남 10월 1인당 사용액은 올해 7월(142만원) 최고를 찍은 뒤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 같은 민간 소비 증가세는 지난 9월6일부터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을 받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와 9월 추석, 방역조치 완화 등의 영향도 한 몫 했다.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숙박·음식점업을 포함한 대면 업종들의 생산 지표는 골고루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 소비지표로 활용되는 '서비스업 생산지

수'를 업종별로 보면 올해 3분기 도소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전년보다 올랐지만 숙박·음식점업은 2분기 반짝 상승한 뒤 반락했다.

광주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다가 올 2분기 1.0% 상승률을 보인 뒤 3분기 0.4% 하락했다.

전남 숙박·음식점업도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분기 1.9% 상승, 3분기는 0.9% 떨어졌다.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수요 확대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로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와 내년 소비 자물개 상승률 전망치도 각 2.3%, 2.0%로 0.2%포인트, 0.5%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의 끝을 내고 올해 초 1%대로 진입한 뒤 지난달 기준 3.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치솟았다.

한은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적 물류난 등 외부적 요인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흐름에 따라 내년 초 금리 추가 인상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시장 김장현·가운데)이 지난 24일 나주 본사에서 개최한 '2021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조선대·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대상

한전KDN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올해 한전KDN이 개최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조선대와 광주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대상을 차지했다.

한전KDN은 지난 24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광주·전남 대학(원)생과 마이스터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한전KDN 주관으로 올해 7번째 개최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 35개 대학과 6개 마이스터고가 총 52개(대학생 40개·고등학생 12개)

작품을 제출했다.

한전KDN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총 24팀(대학교 16팀, 마이스터고 8팀)을 선정하고, 이달 24일 현장 발표와 심사를 치렀다.

그 결과 대학생 부문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과 마이스터고 부문에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등이 수상자에 선정됐다.

조선대 Iothing팀 '어디든 전기차 충전 어댑터'와 광주 SW마이스터고등학교 TOOTH리스팅팀 'AugusTOOTH'가 각각 대상 수상작에 뽑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장현 한전KDN 시장과 한원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광주 SW마이스터고등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전남 혁신성장 현재와 미래' 한은 광주전남본부 경제포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6일 '광주·전남 혁신성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지역경제포럼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기 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허문구 박사(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와 김윤수 박사(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실)의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허문구 박사는 '광주전남지역 혁신성장역량의 특징과 정책과제' 발표에서 광주지역은 교육과 창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연구개발(R&D)과 지식기반 고부가산업 여건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재 유출을 막고 혁신기반역량과 산업기반역량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수 박사는 주제발표 '광주전남 혁신성장 주도산업 도출방안'에서 미래 혁신성장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력산업을 제시했다.

광주는 ▲첨단제조자동화(그린카·스마트카) ▲에너지(리튬이온배터리·수퍼커패시터) ▲전기전자(시스템반도체·웨어러블 전자기기), 전남은 ▲첨단제조자동화(첨단철도·지능형기계) ▲에너지(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냉온열에너지저장) ▲환경지속가능(친환경공공시스템·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 등) 등이 해당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김장나눔' 재료비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은 최근 순천시(시장 허석)를 찾아 '다같이 김·차!' 김장나눔 행사에 쓰일 김장 재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 지원 시작...1% 금리 2천만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용자' 신청이 29일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7일~10월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일상회복 특별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내년 2금융권서도 대출 받기 힘들 듯

금융당국 업권별 가이드라인 가계대출 목표치 하향 조정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2금융권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관리 목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별 업권·규모 등에 따라 내년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차등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업권 평균보다 증가율을 낮게 적용하는 '페널티'가 부여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 때문에 올해 목표 관리에 긴장하고 내년 관리 목표 협의에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권의 올해 증가율 목표치는 4.1%였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증가율 목표치가 21.1%였던 저축은행의 경우 사별로 10.8~14.8% 증가율을 내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고금리 대출 등의 증가는 올해와 같이 5.4%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대 초반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각사에 관리 목표를 다음 달 초까지 제출하라고 공식 통보했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업계와도 내년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99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3	18	25	31	33	44	3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904,166,032				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5,202,013				110
3	5개 숫자일치	1,304,218				2,969
4	4개 숫자일치	50,000				138,068
5	3개 숫자일치	5,000				2,226,394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